

AUTHOR 김길성 (Kil Sung Kim)

TITLE 칼빈과 교회의 일치

(John Calvin and the Unity of the Church)

IN 신학지남(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vol.70 no.1 (Spring, 2003):170-195

## 칼빈과 교회의 일치

김 길 성  
(조직신학)

- I. 서 론
- II. 교회의 속성과 표지
- III. 교회의 일치에 대한 칼빈의 견해
- IV. 결 론

### I. 서 론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불가견 교회(the invisible church)와 가견 교회(the visible church)를 구분하였다.<sup>1)</sup> 참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불가견 교회의 통일성은 신자들의 영적인 통일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가견 교회는 가견 교회에 비해서 보다 더 순전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더욱 완전한 기독교적 이상의 구현이다.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 가견 교회의 구성원들은 특권과 성찬이라는 외적인 교통 안에서 결속되어 있다. 하지만 가견 교회는 역사 속에서 교리와 행위의 불화로 인하여 지금까지 괴로움을 경험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분열의 혼적들이 가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통일성의 외적인 표지 밑에서 발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 교회는 통상적으로 불가견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가견 교회의 통일성과 혼동하여 왔다. 하지만 불가견 교회의 하나됨은 가견 교회를 위한 이상적인 목표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sup>2)</sup> 현세에서 불가견 교회의 통일성과 가견 교회의 통일성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는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극심하기 때문에 가견 교회의 통일성은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 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되어서야 완전하게 성취될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시대에 가견 교회의 통일성을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가견 교회의 통일성은 적어도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와의 외적인 관계에서 발견될 수 있다.

가견 교회의 일치를 논의함에 있어서 배너먼(James Bannerman)은 교회에 나타나는 분열의 해악, 곧 불필요한 분리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는 “불충분한 근거에 기초하여” 가견 교회의 친교로부터 “방자하게 분리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지적한다. 이와 같은 분리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거역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이다.<sup>3)</sup> 사소한 이유 때문에 가견 교회의 친교를 떠나서 의도적으로 그 불화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의도와는 상반되는 위치에 두는 것이다.

더욱이 배너먼은 우리의 연구를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암시들을 제

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IV. 1. 7.

2)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1939; rpt.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9), 577.

3) James Bannerman, *The Church of Christ* (Edinburgh: T. & T. Clark, 1898), I, 48.

시하고 있다. 그는 지교회(a local church)로부터 분리하는데 있어서 다음 두 가지의 실제적이고 충분한 근거가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개 교회가 신앙을 버렸을 때이며, 둘째로 개 교회가 그 교인들에게 죄악 된 친교의 교제에 순응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분열의 잘못은 죄가 없는 교인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 양 경우에 있어서 배너면은 말하기를, 분리는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지 피해야 할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sup>4)</sup> 나아가서 그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교회가 분열의 책임을 져야 하며, 분리를 감행한 그 당사자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층 더 높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치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교회의 일치에 관한 칼빈의 이해를 논의할 때에 교회에 관한 이와 같은 배너면의 시각은 훨씬 더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sup>5)</sup> 칼빈의 교회론에 관한 면밀한 검토는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주로 교회의 일치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한다.

## II. 교회의 속성과 표지

종교개혁 시대에 로마 교회(the Roman Catholic Church)는 칼케돈 신경(the Chalcedonian Creed)에서 명시하고 있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라는 교회의 특성을 로마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로마 교회는 한 성령과 동일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참 신자들의 교통이라는 영적 통일성의 관점이 아니라 가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리자(“the Vicar of Christ”)로 자처한 교황의 권위에 대한 복종과 같은 외적 통일성의 관점에서 교회의 일치를 정

4) Ibid.

5) 이 주제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Paul Woolley, “Calvin and Toleration,” in *Calvin Anniversary Lectures*, mimeographed edition (1959), 1-21을 보라.

의하였다.

로마 교회의 경우, 거룩성은 진리를 믿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성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고해성사, 사죄, 면죄부, 그리고 다른 외적인 은혜의 현시를 통해서 얻어지게 된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보편성은 로마 교회의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과 예배의 외적 일치와, 신앙 고백과 예전의 공식적이고 외적인 통일성이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계층과 인종과 민족을 불문하고 자유로운 은혜의 복음이 주어지는 것을 거부한다. 또한, 로마 교회에서 교회의 사도성은 사도 시대 이래로 감독과 성례의 공적이고 외형적인 계승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로마 교회는 사실상 사도적 신앙과 사도적 교리를 따르는 것을 거부하였다.

개혁주의자들은 교회의 속성과 관련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견해를 단호히 거부하였다. 그러나, 개혁가들은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the Nicene-Constantinopolitan Creed)<sup>6)</sup>을 거부하지 않았으며, 로마 교회가 독단적으로 교회의 속성들이라고 주장했던 방식에 대해서만 거부하였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개혁주의자들은 ‘오직 성경으로만’ (Sola Scriptura), ‘오직 믿음으로만’ (Sola Fide), ‘오직 은혜로만’ (Sola Gratia), ‘하나님의 면전에서’ (Coram Deo),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Soli Deo Gloria)라는 원리들을 강조한다.

개혁주의자들은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한 권위로서 성경을 옹호하고 성경의 권위에 교회와 전통을 종속시킴으로써 교회의 네 가지 속성 가운데 사도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개혁가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에 대한 신실함이 교회의 표지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교회가 사도적인 복음을 전파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참된 교회로 간주하였다. 개혁파 교

6)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은 기독교회의 네 가지 속성들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III (1910; rp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9), 669를 보라. 또한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I (1877; rpt.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19), 28을 참조하라.

회와 루터파 교회는 모두 종교개혁의 교회들로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존중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례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중요시하였다.<sup>7)</sup>

칼빈도 역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는 말씀의 사역과 성례가 온전하고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에는 관용을 보여주고자 애를 썼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으로부터 교회의 외관이 나타나게 되며,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전파되고 들려지며, 또한 성례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 시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참조, 앵 2:20].<sup>8)</sup>

그렇지만 칼빈은 또한, “복음의 진리”나 “필수적인 교리의 대의”(the sum of necessary doctrine)가 거짓으로 변질되었을 때, 그것은 “목에 관통상을 당했거나 심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과 같다”고 말했다.<sup>9)</sup>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유품이 되는 중요한 표지는 말씀의 사역이었다. 교회의 유일하고도 중요한 특징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회의 다른 두 가지의 표지가 나오게 된다. 말씀에 대한 순전한 사역은 반드시 성례의 순수한 시행에 의해서 보증되어야 한다. 그리고 말씀의 합당한 선포와 성례의 합당한 준수는, 지상 교회에서 교회 권징의 행사를 내포하고 있다.<sup>10)</sup>

여기에서 교회의 표지(the marks of the church)에 관한 배너면

7) Berkhof, *Systematic Theology*, 610.

8) Calvin, *Institutes*, IV, 1, 9.

9) Ibid., IV, 2, 1.

10) Edmund P. Clowney, *Living in Christ's Church* (Philadelphia: Great Commission Publications, 1986), 130.

(Bannerman)의 관찰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는 “교회의 존재에 필수적인 것”과 “교회의 안녕과 질서에 필수적인 것”을 구분한다.<sup>11)</sup> 그는 또한 교회 설립의 목표가 되는 것들과 교회를 위해 설립된 것들을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의 존재에 관하여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기를 그치지 않으면서도 잘못을 범할 수 있는 많은 교리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교리와 의무, 신앙과 실제에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은 신자들의 완성을 위해서 필연적인 것들이지만, 신자로서의 자기 존재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 곧 그리스도의 교리를 고수하고 가르치는 것만이 기독교 교회가 지니고 있는 단 하나의 확실하고 틀림없는 특징 내지는 표지”라는 것은 분명하다.<sup>12)</sup>

참된 교회는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이다. 순수성을 잃은 교회는 거짓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이다. 교회는 진리를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다. 성찬식, 직분자, 권징과 같이 교회를 위해서 설립된 제도들은 교회의 유익과 질서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들은 진리에 복종해야 한다. 그것들은 교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교회의 존재 자체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전적으로 순전한 교회가 결코 존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제도들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해야 한다.<sup>13)</sup>

칼빈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입이며,<sup>14)</sup>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설교는 반드

11) Bannerman, *The Church of Christ*, I, 54~67, 인용은 p. 55.

12) Ibid., 59.

13) *The Confession of Faith* (1976; rpt. Glasgow: Free Presbyterian Publications, 1985), XXV:5와 6.

14) John Calvin, *Calvin's Commentaries*, eds.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0-75), Comm. 55:11.

시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야 한다. 칼빈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역자들의 음성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하였다.<sup>15)</sup>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지로 간주한다.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될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몸소 말씀하고 계신 것과 같다.<sup>16)</sup> 칼빈에게 있어서 설교는 은혜의 수단이다. 성령께서는 설교자의 말을 사용하시므로 설교는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와 자비 속에서 느껴질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마음을 조명하시는 성령의 사역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sup>17)</sup>

교회의 두 번째 표지는 성례의 직무인데, 여기에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포함된다. 세례와 성찬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지만, 말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해와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례는 단순한 표시나 외적인 상징 이상의 것이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성례라는 보이는 말씀에 의해서 확인된다. 세례와 성찬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이며,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말씀과 성례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말씀은 성례 없이도 존재할 수 있지만, 성례는 말씀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례는 말씀에 대해서 보충하는 것이며, 말씀을 보충하는 것이다.<sup>18)</sup>

교회의 세 번째 표지는 권징이다.<sup>19)</sup> 교회의 권징은 말씀과 성례로부터 흘러나온다.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천국 열쇠와 관련이 있다 (마

15) Ibid., Comm. Isa 50:10.

16) Ibid., Comm. John 14:26; Comm. Ezek 2:2; Comm. Isa 29:11.

17) Calvin, *Institutes*, I. 7, 8.

18) Berkhof, *Systematic Theology*, 576-78.

19) 교회의 표지의 개수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Berkhof, *Systematic Theology*, 576-77을 보라.

10:14, 15; 16:19; 18:18). 설교는 그것을 듣는 자의 편에서의 결단을 요구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는 상태로 남겨두게 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 권징이 지니는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였다.<sup>20)</sup> 교회 권징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엡 5:25, 26; 골 1:24). 두 번째 목적은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과의 교제로 인하여 타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다 (고전 5:6~8).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자기 자신이 지은 죄의 수치심에 잠겨 있는 사람들을 회개로 이끄는 것이다 (고전 5:5; 살후 3:14, 15).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 하며 권하라” (딤후 4:2)고 쓰고 있다. 교회 권징은 “하나님의 뜻을 설교하는 바로 그 행위 안에” 존재하고 있다.<sup>21)</sup> 마치 성례가 시행되는 것처럼, 교회 권징 또한 설교의 방법으로 행사되어져야 한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전 11:32; 갈 5; 엡 5:3). 그리스도께서 교회 권징의 필요성에 대하여 친히 말씀하신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한 후,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번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마 16:17~19).

20) Calvin, *Institutes*, IV. 11과 12. 특히 IV. 12. 5를 보라.

21) Edmund P. Clowney, *Living in Christ's Church*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69), 135.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형제들 사이에(마 18:15~18) 권징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인데, 교회가 범죄 한 회원들을 대하되 마치 이방인과 세리들을 대하듯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마 18:17). 범죄한 자들은 피해야 하며(롬 16:17; 딤전 6:11), 또한 심한 경우에는 무리를 가운데서 추방해야 하는 것이다(고전 5:13).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요 20:21~23).

위의 경우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에 권징을 시행할 영구적인 은사로서 권위와 권세를 양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이다. 오직 이러한 방법으로 교회의 거룩성이 보존되고 증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고백 교회(a confessional church)여야 한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영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기준을 필요로 하는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다. 첫째는, 교회 권징은 일단의 무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든지,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표준을 제시해 준다. 둘째는, 교회 권징은 교회 교인들의 순종과 건력을 장려한다.<sup>22)</sup> 마치 각종 자발적인 단체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리처럼, 교회는 교인들의 입회나 퇴출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한 교인으로 있는 동안 그들의 행위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교

<sup>22)</sup> see Bannerman, *Church of Christ*, 186-98.

회는 지교회 교인들에게 교회법을 강제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그 제도의 목적과 규칙을 따르기를 확답하지 않는 자들을 교회 교인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교인들이 그 제도의 질서와 의무를 의도적으로 떠나서는 이후에 충족할 만한 아무런 개선 방법이 없다고 하면, 교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교회의 교재로부터 추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 아니다(마 18:15~18).<sup>23)</sup>

그러나, 모든 경우에서 교회 권징은 가장 상냥하게, 그리고 진정한 이해 가운데서 행사되어야 한다. 또한 권징에는 피할 수 없는 상처가 따를지라도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히 12:11)을 것이다.

비록 가끔 교회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순결에 이를 수는 없지만, 이 땅 위에서 가능한 한 그 이상(Ideal)에 신실하게 남아 있을 교회는, 기독교 권징의 행사에 있어서 부지런해야 하며, 또한 양심적이어야 한다. 별콥은 그의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에서 기독교 권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가 거대한 선교 기관인 것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제일 먼저 공공연하게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을 용납할 수 없는 성도들의 공회인 것을 잊어버리는 명백한 경향이 있다. 이 경향은 말하기를 죄인들은 교회 안으로 모여야지 교회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그들이 성도로서 모여야 한다는 것과 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또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을 때에는 교회 안에 합법적인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sup>24)</sup>

<sup>23)</sup> Cf. Machen, *Christianity and Liberalism*, 167: "The best way would undoubtedly be the voluntary withdrawal of the liberal ministers from those confessional churches whose confessions they do not, in the plain historical sense, accept."

<sup>24)</sup>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1939; rpt.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9), 601.

그러므로, 교회 권징은 크리스천의 거룩한 삶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것이며, 또한 “공공연하게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을 교정함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메이천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교리적, 윤리적 순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은 말씀을 설교하는 책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성경의 권위를 “공공연하게” 부인하며 기독교 교리를 업신여긴다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메이천이 목회의 교리적, 윤리적 헌신을 유지하려고 했던 관심은 말씀의 전파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의 관심의 표현이었다.

그는 로우악이 가정한 것처럼 그저 자기가 알고 있는 장로교(Presbyterianism)를 보존하려는 욕망을 표현한 것이나, 혹은 자유주의(Liberalism)의 암시적 위험들에 대한 감정적인 과도한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었다.<sup>25)</sup> 메이천을 공격했던 로우악조차도, 칼빈은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이 제네바 시민 전부가 지켜야 할 것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sup>26)</sup> 이 경우에 목사 후보생은 이미 (제네바) 교회의 교인으로서 신앙고백에 서약을 하였기 때문에 임직시 “가르치는 직분을 위한 후보생”으로서 따로 신앙고백에 서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로우악의 주장이다.<sup>27)</sup> 그런데 메이천은 “가르치는 직분자들에 대한 엄격한 서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칼빈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위 “가르치는 직분자들에 대한 엄격한 서약”을 요구하는 메이천의 견해는 “본질에 있어서 계급 제도적이며,” 이점에 있어서 메이천은 “종교개혁을 넘어갔다”고 주장한다.<sup>28)</sup> 그러나 제네바 시민전부에게 신앙고백의 서약을 요구한 칼빈의 입장은, 가르치는 직분자들의 정직하고 신

실한 서약을 요구한 메이천의 입장과 비교해볼 때, 훨씬더 엄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메이천은 목회 사역과 교회의 회원자격을 구분함으로써 그는 교회 안에서 성직자 계급 제도의 태도를 추구한 것도 아니며, 또한 ‘현법에 순종하는 교회’를 유지하려고 단순히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틀림없이 그 현법은 장로교회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성경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현법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교회 위원회의 권위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가? 메이천의 본래 의도는 장로교회의 현법을 지지하는 것에 앞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성경의 권위를 지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메이천은 그의 책, 「기독교와 자유주의」(Christianity and Liberalism)에서 목회 사역과 교회의 회원자격에는 구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그의 첫째 관심은 “중대한 의심과 의문으로 고민하는 교인이 자신의 의심으로 말미암아 교인의 자격을 정직하게 지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교제와 도움”을 주고 있고, 또한 “이들을 물리치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한다.<sup>29)</sup>

오히려 그의 첫째 관심은, “배우기를 원하는 것보다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과 “이들이 서약한 신앙고백(the Confession of Faith)에 정반대되는 것을 가르치고자 목회의 자리를 찾고 있는” 자들에게 있었던 것이다.<sup>30)</sup> 1920년대와 1930년대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 특히 독일로부터 유입되어, 교회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직분에 종사하는 이들이 자신의 목사 임직 서약을 무시하고, 자신이 속한 교회의 신앙고백과 정반대되는 것을 공공연하게 자신의 강의와 설교에서 전달하는 정황에 대항하여 메이천의 입장은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문맥 속에

25) Roark, "Doctrinally True Presbyterian Church," 214, 216.

26) Cf. Benjamin B. 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1956; rpt.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80), 17.

27) Ibid., 191ff. 인용은 각각 193페이지와 196페이지에서 함.

28) Ibid., 196.

29) Machen, *Christianity and Liberalism*, 163.

30) Ibid., 164.

서 메이천은 목회 사역과 교회의 회원자격을 구별하였으며 또한 가르치는 직분 자들에게 “정직하고 신실한 서약”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신앙고백과 신조에 정반대 되는 것을 가르치는 목사들을 용납할 수 있었겠는가? 대답은 분명히 그 반대일 것이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단언하는 것은, 칼빈과 메이천, 두 사람 모두의 관심인 교회의 일치의 중심 내용은, 바로 교회가 그 머리아신 그리스도에게 신실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에 충실히 한다는 것에 대한 이들의 관심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징을 행할 수 있는 영원한 권위와 능력의 선물을 자신의 교회에 주셨다는 것은 분명하다. 교회의 거룩함은 오직 이와 같은 권정의 방식으로 보존될 수 있고 고양될 수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신앙 고백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웨스트민스터 신도 계요(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가 바르게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교회의 가장 순전한 모습은 이 세상에서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성경에 비추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개혁하도록 요구받는 바로 그 이유이다. 현재 교회 안에 존재하는 많은 과실, 이단, 그리고 배교 속에서 교회의 표지는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교회의 표지는 ‘교회의 존재’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의 존재’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건을 포함하는 것이다.<sup>31)</sup>

### III. 교회의 일치에 대한 칼빈의 견해

칼빈은 그 시대의 교회를 혁신하고 교회의 속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던 교회 개혁 운동에서 강력한 인물이었다. 칼빈은 제네바라는 도

31) *The Confession of Faith*, XXX:5.

시 안에서 로마 교황의 명령이 미치거나 효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주교의 권력은 무너졌고 시민들의 습관도 변화되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으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업을 영위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칼빈은 이단적인 세로베 투스를 사형에 처하는데 동의하였으며, 주술에 대해서 가혹한 형벌로 벌하고자 하였다. 칼빈은 제네바의 행정 관료들이 지켜야 하는 대단히 엄격한 요구 조건들을 확립하였다. 그는 모든 시민들이 개신교 신앙고백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데에 동의했다. 그는 시의 행정관들이 교회의 출석을 강화해 줄 것을 원하였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칼빈을 압제적인 독재자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칼빈에 대한 연구와 교회의 일치에 대한 그의 견해에 대해서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복잡한 점이다.

가령, 로우악(Dallas M. Roark)은 교회의 분열에 반대하는 칼빈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메이천(John Gresham Machen, 1881~1937)의 교회론을 비판하고 있다.<sup>32)</sup> 그는 교의상의 문제에서 일치에 관한 칼빈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는 모든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아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무지로 인하여 다소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교회도 현재의 상태로 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종교의 대의에 해를 끼치지 않거나 또는 구원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속에 있는 일탈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33)</sup>

32) Dallas M. Roark, "J. Gresham Machen and His Desire to Maintain a Doctrinally True Presbyterian Church" (Ph. D.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Iowa, 1963; Ann Arbor: University Microfilms, Inc., 1963), 191f.

33) Calvin, *Institutes*, IV. 1. 12.

로우악은 위에 인용한 칼빈의 글을 사용하여, 1920년대와 1930년대 당시 미합중국 장로교회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CUSA) 안에서 메이천의 입장과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로우악에 따르면, 위의 글에서 칼빈은 성도들이 도무지 교회에서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는 것이다.

메이천에 대한 로우악의 비판이 정당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위의 칼빈의 진술을 기록되어 있는 그 본문의 맥락에서 검토해야 한다. 칼빈은 문맥 속에서 지금까지 교회의 표지를 논의하고 있으며, 말씀의 순수한 사역과 성례의 집행이 보여주는 순전한 형태가 교회에서 지속되지만 한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로우악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 바로 앞에 칼빈은 빌립보서 3장 15절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이러한 비본질적 문제들에 관한 견해차이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열을 야기하는 기초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이것이 충분히 지적하고 있지 않은가? <sup>34)</sup>

문맥의 전후를 살펴보면, 칼빈은 이곳에서 성도들이 도무지 교회에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칼빈은 여기서 신앙에 관한 “비본질적인” 조항들, 곧 “종교의 대의에 해를 끼치지 않거나 또는 구원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견해차이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의 이 말은 메이천의 시대에 자유주의자들이 교회에서 했던 것과 같이, 만일 “종교의 대의”(the sum of religion)가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부인된다면 사정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 지적되지 않으면 안

<sup>34)</sup> Ibid.

된다. 따라서, 문맥을 무시하고 칼빈의 글의 일부를 인용하여 메이천을 칼빈과 상반되는 입장에 두려고 하는 로우악의 시도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로우악은 또한 메이천의 교회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칼빈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비록 교회가 한 종교 회의에 의해서 억압받는다 하더라도, 패가 되어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경이롭게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진리가 교회 안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확신한다.<sup>35)</sup>

그리고 나서 로우악은 “만일 메이천이 그와 같은 권고를 따랐더라면, 미국 장로교회에 남아 있었을 것이며, 또한 교회 없이 그가 이루었던 것보다 더 많은 바람직한 개혁을 성취하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sup>36)</sup> 하지만 이와 같은 메이천에 대한 비판은 칼빈의 견해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칼빈의 주장이 사용된 문맥에서 고려된 것이 아니다. 로우악에 의해서 인용된 구절 바로 앞에서 칼빈은 성경의 해석을 위한 종교 회의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 예로서 종교 회의가 유티커스 이단을 지지했기 때문에 일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추방당했던 제 2차 예배소 종교 회의를 예시하고 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전술하고 있다:

그 사건은 주님의 영이 아니라 매우 사악한 품성을 지닌 디오스코루스가 회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거기에 교회가 없었다고 말하는데, 나도 그것을 인정한다.<sup>37)</sup>

<sup>35)</sup> Ibid., IV. 9. 13.

<sup>36)</sup> Roark, “Doctrinally True Presbyterian Church,” 197.

<sup>37)</sup> Calvin, *Institutes*, IV. 9. 13.

이 말을 하고 나서 칼빈은 곧 “진리가 교회 안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메이천이 거리낌없이 자유주의자들의 존재와 교회 안에서 자행된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반대하였던 것처럼, 칼빈은 제 2차 애베소 종교회의 자체의 정당성과 종교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의 합법성을 부인하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메이천을 칼빈과 반대되는 입장에 두려는 로우악의 노력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메이천이 칼빈의 「기독교강요」제4권 1장 17~22절에 나타난 칼빈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분리적 경향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시도했다. 특히 1장 18절에서 칼빈은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한 괴로움”에 대해서 애통하면서도 그 회중에 동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그리고 하박국과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sup>38)</sup>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지만 만일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백성들이 행한 수많은 엄청난 범죄로 말미암아 거룩한 선지자들이 스스로를 교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에 대해 거리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도덕성이 우리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또는 기독교 신앙 고백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교회의 교통으로부터 물려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다.<sup>39)</sup>

38) Edward John Carnell, *The Case for Orthodox Theolog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9), 114-19를 보라. 특히 pp. 115-16에서 그는 메이천의 교회론에 반대하여 칼빈의 「기독교강요」IV. 1. 18을 인용하고 있다. 또한 *The Presbyterian Guardian* 16(June 25, 1947): 190와 “Rian Reunites with the Presbyterian Church,” *Christian Century* 64 (June 25, 1947): 788-89를 보라. 후자에는 Rian이 유사한 견해 때문에 미합중국 장로교회로 복귀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39) Ibid., IV. 1. 18.

이와 같은 칼빈의 진술에 입각하여 메이천을 평가할 때, 우리는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점들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로, 메이천은 미국 장로교회로부터 분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교회로부터 벼름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로우악이 진술한 바와 같이 1906년 메이천이 독일에서 돌아왔을 때, 로우악은 “메이천이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자유주의의 영향”을 발견하였다.<sup>40)</sup> 자유주의는 이미 “많은 미국의 신학교들과 적지 않은 교회”에 스며들어 있었다.<sup>41)</sup> 교수이자 앤수를 받은 목사로서, 메이천은 인내를 가지고 참고 있다가 장로교회 안에 존재하는 자유주의와 그 가르침과 논쟁하였으며, 자유주의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교회에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메이천은 그가 1936년 총회에 의해서 정직 되었던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를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주의자들은 프린스頓 신학교의 재편과 메이천의 재판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위 중도파의 도움으로 메이천과 다른 보수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다.<sup>42)</sup>

둘째로, 고대 이스라엘의 상황은 메이천이 처해 있었던 시대적 정황과는 달랐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불법과 부도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였다(cf. 사 1:2ff.; 렘 4:1ff.). 하지만 메이천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도덕에 맞섰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를 복음에 반대하는 조직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과 맞섰던 것이다.

40) Roark, “Doctrinally True Presbyterian Church,” 98.

41) Ibid.

42) 메이천의 재판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Darryl G. Hart, “Doctor Fundamentals: An Intellectual Biography of J. Gresham Machen, 1881-1937” (Ph. D. dissertation, Johns Hopkins University, 1988), 282-337을 보라. 또한, George P. Hutchinson, *The History behind th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Evangelical Synod* (Cherry Hill, N. J.: Mack Publishing Company, 1972), 206-24를 보라.

셋째로, 우리는 칼빈 자신이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므로 위에 인용한 칼빈의 선언은 전적으로 분리를 금지하는 것으로 결코 해석될 수 없다. 교회의 일치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관심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그만큼 열정적이었다. 메이천이 그가 살았던 시대에 했던 것과 같이, 칼빈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 순결을 유지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메이천이 그랬던 것처럼, 칼빈도 복음을 옹호하고 했기 때문에 교회의 주류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교회 일치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칼빈은 무엇보다 교회 일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541년 9월, 칼빈은 1538년에 시작되었던 스트라스부르에서의 망명 생활을 끝내고 제네바로 돌아왔다. 스트라스부르에 머무는 동안 칼빈은 부서(Martin Bucer)와 카피토(Wolfgang Capito)와 함께 사역하였다. 칼빈은 스트라스부르를 떠나기 전에 로마의 신학자들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멜랑히톤(Philip Melanchthon)과 긴밀하게 사역하였다. 칼빈은 루터(Martin Luther)의 가까운 동역자였던 멜랑히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우리는 당신의 편지가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 위에 있는 하늘에서 영원히 머무를 것이며,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속적인 우정과 사랑을 기뻐할 것입니다.<sup>43)</sup>

칼빈은 또한 취리히에 있는 쭈빙글리(Zwingli)의 후계자인 불링거(Henry Bullinger)에게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43) John Calvin, *Letters of John Calvin*, ed. Jules Bonnet (Philadelphia: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1858), I, 374.

친애하는 불링거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힘이 미치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우리 가운데 형제와 같은 친밀함을 유지하고 견고히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 우리는 또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사역하는 교회들이 우리 안에서 일치되도록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sup>44)</sup>

칼빈은 심지어 자신의 입장과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의견을 주고받기를 원했다. 그는 주님의 성찬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달랠 수 있는 희망이 존재한다면, 나는 겸손하게 그들에게 애원함으로써 교회의 평화를 이루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sup>45)</sup> 칼빈의 경우, 무지함과 연약함은 부드럽고 친절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그는 “모든 교사들은 그들이 스스로 무지하고 불결한 자들의 입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겸손하고 친절하게 준수해야 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적고 있다.<sup>46)</sup>

칼빈은 또한 반복적으로 관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였다. 예컨대, 그는 구약의 기생 라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석 하였다: “불의한 일을 통하여 부끄러운 생계를 영위했던 한 여인이 곧 선택된 백성의 공동체에 수용되었으며, 회중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현저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sup>47)</sup> 그리고 이것은 “비록 우리가 전 세상을 범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나 금지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그가 자신의 정당한 순종을 방해받을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을 행하거나 삼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이와 같은 원칙

44) Ibid., 113.

45) John Calvin, “Sacred Defense against Westphal,” in *Tracts and Treatises on the Reformation of the Church* (1844; rp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8), II, 248.

46) Calvin, *Commentaries*, Comm. 롬 1:14.

47) Ibid., Comm. 수 2:1.

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있다.”<sup>48)</sup>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칼빈은 많은 행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미리 규정되지 않은 상당한 자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유는 양심에 존재하며, 하나님께 의존한다. 자유를 사용하는 것은 외부의 사정에 달려 있으며, 단지 하나님과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되어 있다. ... 자유는 명예에 구속되어야 하는 육체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한 사람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다.<sup>49)</sup>

칼빈은 사람을 바른 행위로 돌려놓기 위해서 모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역설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종종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훨씬 더 큰 행동의 자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이 반드시 인식되어야 한다. 그는 또한 처벌은 “오직 완강하고 만성적인 죄인들”에 대해서만 이것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처벌은 행정관이 집행하되, 악질적이고 증거가 확실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칼빈은 죄를 묵과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교훈적인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모든 노력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만일 그들의 완고함을 극복할 수 없다면, 행정관은 강제적으로 그들을 억제해야만 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홀륭한 목사는 사악하고 위험한 교리들이 점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묵과하거나 악한 자들에게 그러한 교리들을 퍼뜨릴 기회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 교회는 그

48) Calvin, *Letters*, I, 303.

49) Calvin, *Commentaries*, Comm. 갈 5:13.

들에게 침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행동한다면, 적어도 그들이 해악을 끼칠 기회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자의 모임으로부터 그들을 추방할 수 있다.<sup>50)</sup>

칼빈은 또한 “전투적 교회는.... 회개하기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보복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sup>51)</sup> 칼빈은 교회의 일치를 열망하였지만, 또한 로마 교회의 죄악과 타락상이 교회로 하여금 일치를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현재의 정황은 교황제도의 부도덕한 죄악들과 폐해가 너무나도 만연해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종교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sup>52)</sup>

칼빈은 교황을 “혐오스러운 괴물이요, 전 세계에 대해서 학정을 행하는 적 그리스도”로 평가하였다.<sup>53)</sup> 따라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거짓된 확신과 신앙으로 유혹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sup>54)</sup> 이와 같이 칼빈은 그가 로마 교회를 배교했다는 비난을 정당하게 거부하였다:

교황청에 복종하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배교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이다. 그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 전체를 훼손시켜 왔는데, 그것은 교회를 백 번 이상이나 파괴시키고 없애버리기에 충분할 것이다.<sup>55)</sup>

50) Ibid., Comm. 딤 1:11.

51) Ibid., Comm. 시 18:47.

52) Ibid., Comm. 창 28:6.

53) Ibid., Comm. 사 37:26.

54) Ibid., Comm. 렘 29:30-32.

55) Ibid., Comm. 요 1:17.

칼빈에게 있어서 그가 소망했던 교회 일치의 관건은 그리스도의 통치였다. 그러므로 칼빈은 처음에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8세를 찬양하고 그에게 모든 것에 대한 최상의 권력을 부여했던 사람들을 “경솔한 사람”이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자들”로 간주하였다.<sup>56)</sup> 칼빈에게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교회 일치에 필수적인 것이었다. “당신의 진리가 일치의 끈이 되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교회의 일치를 위한 열정으로 불태우겠습니다.”<sup>57)</sup> 그러나, 칼빈은 지상의 교회로부터 완전함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최상의 완벽함을 찾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그들은 악덕을 참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그 악덕이 고쳐질 수 없을 때, 그 악덕에 대해서 분개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교회로부터 분리하여서 자신들을 위해서 완전한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구성하고자 노력한다.<sup>58)</sup>

위의 글에서 칼빈은 지상의 교회에서 완벽함을 찾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부서(Martin Bucer)에게 자신이 “사소한 규례”라고 불렀던 것에 대해서 루터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말도록 당부할 수 있는 것이다.<sup>59)</sup>

그러나 동시에, 칼빈은 교회 내에 “사소하지 않은 규례”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그 의식이 사소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가르침의 양식에 나타난 다양성이 우리로 하여금 한 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며, 그 진리가 함께 연합되어 있어서 우리가 한 몸과 한 영으로 자라 갈 수 있으며, 또한

56) Calvin, *Commentaries*, Comm. 암 7:10-13.

57) Calvin, *Tracts and Treatises*, II, 34.

58) Calvin, *Commentaries*, Comm. 합 2:1-5.

59) Calvin, *Letters*, I, 137.

동일하게 전체 믿음에 속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sup>60)</sup> 칼빈은 또한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만일 나의 열정에 담긴 의도 자체가 선한 목적과 심지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진리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 ... 왜 나에게 잘못을 덮어씌우는 것인가?”<sup>61)</sup>

그러므로, 시금석은 “주님의 진리”, “믿음의 대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진리”이며, 또는 칼빈이 다른 곳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지도록 바울이 가르친 그 교리”가 교회에서 가감 없이 바르게 전달되며 또한 청취되고 있는지의 여부의 문제이다.<sup>62)</sup>

#### IV. 결 론

마지막으로 칼빈이 교회의 일치와 평화를 위해서 열정적이었던 것과 같이 그는 또한 교회의 순결에 대해서도 그만큼 헌신적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한다. 칼빈의 경우에는 교회의 일치가 “신앙의 대의”, 즉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지도록 바울이 가르친 그 교리”를 포기하고서는 얻어질 수 없는 것이다.

교회 일치에 대해서 보여준 칼빈의 지대한 관심은 그가 제네바로 돌아온 후의 활동에서도 발견된다. 칼빈은 제네바로 돌아오자마자 교회 규례(Ecclesiastical Ordinances)를 입안함으로써 교회의 일치를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건전한 교회 질서가 교회의 순결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치와 평화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1542년에 그는 권장을 위해서 채택된 규칙을 기록하였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비록 변변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허용된 것으로 마침내 장로교 치리회(Presbyterian

60) Calvin, *Tracts and Treatises*, II, 34.

61) Ibid., 351.

62) Calvin, *Letters*, I, 117.

Court)와 권징의 구성을 소유하게 되었다.”<sup>63)</sup> 칼빈에게 일치와 진리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갓프리(W. Robert Godfrey) 교수가 바르게 지적한 것과 같이,

“일치는 연합 안에서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일치이다.”<sup>64)</sup>

칼빈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고자 노력하였으며, 교회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칼빈이 사용한 기준은 확실하고 무오한 신구약 성경이었다. 칼빈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에게 실재가 되며, 하나님의 사역이 개인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 성취되는 일차적인 수단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는 것은 권징보다 우월한 것이었다.<sup>65)</sup> 1541년에 제네바로 돌아온 후, 칼빈은 주일마다 두 번의 설교를 하였으며, 그리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도 설교하였다. 1542년에 칼빈은 회중의 요청에 부응하여 더욱 자주 설교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칼빈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였기 때문에 시의회는 마침내 그를 자유롭게 해주었다. 1549년 칼빈은 주일마다 두 번, 그리고 이주에 한번씩 평일에 설교를 하였다. 스타우퍼(Richard Stauffer)는 이미 알려진 설교문이 칼빈에 관한 전체 자료의 삼분의 일을 차지한다고 평가한다.<sup>66)</sup> 메이천이 자기가 살던 시대에 했던 것처

63) John Calvin, *Selected Works, Tracts and Letters*, eds. H. Beveridge and J. Bonne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I, 316.

64) W. Robert Godfrey, “Calvin and the Church 1541-1991,” *The Outlook* 41 (October 1991): 5-6. 인용은 p. 6.

65) Calvin, *Institutes*, IV. 1. 9-29를 참조하라.

66) Richard Stauffer, “Un Calvin méconnu: le prédicateur de Genève,” *Bulletin de la Société de l'histoire du Protestantisme Français* 123 (1977): 184-89. 또한 Richard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dans la prédication de Calvin* (Bern: Peter Lang, 1978), 10을 보라.

럼, 존 칼빈은 죄악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반석 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우기 위해서 평생토록 노력하였다.

개혁 신학자들은 언제나 교회 권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들은 가끔 교회의 순결에 있어서 권징을 절대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존재하는 자유주의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응했다고 메이천을 폄하하는 로우악의 비난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복음의 진리와 “필수적인 교리의 대의”를 거부하였던 “완강하고 만성적인 죄인”에 관한 칼빈의 진술을 생각할 때, 칼빈을 메이천과 상반되는 입장에 두고자 하는 로우악의 노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sup>67)</sup>

그러므로 메이천을 엄격한 서약론자(Subscriptionist)라고 규정하는 로우악(Dallas M. Roark)의 비판 역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입증된다. 지상의 교회가 비록 진리를 나타내는데 있어서 비교적 순전하지 못하기 하지만, 우리는 교회가 진리를 잘못 설명하거나 부정하는 데까지 갈 수 없는 제한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 만일 “신앙의 근본적인 조항들”이 교회 내에서 공공연하게 거부되고, 교회의 교리와 행위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의 일치에 관한 칼빈의 견해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제네바 시에서 교리적 순결을 향한 칼빈의 열망이 메이천의 열정과 다를 바가 없었으며, 말씀의 선포에 관한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독교인의 삶의 모든 차원에 적용하려는 그의 열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메이천을 엄격한 서약론자로 부른다면, 칼빈도 역시 그렇게 불러야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메이천은 역사적 개혁신학자요 정통 칼빈주의자로서 칼빈의 면면한 물줄기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67) Calvin, *Institutes*, IV. 2. 1; Calvin, *Commentaries*, Comm. 딪 1:11.